朝鮮日報 朝刊

社說 新國際機構案의 一瞥

一

對伊制裁問題會議를 機會로 라발佛首相과 호어英外相이 數次 巴府에서 會見하엿슬때 右兩者間에 國際政局에 新紀元을 劃할 重要提案을 檢討하엿다함은 旣報된바와 갓거니와 이所謂 重要提案이라함은 全世界를 包括하는 集團的平和機構로서의 國際聯盟을 單只 國際紛爭 其他에 關한 審議에 局限하고 그와 同時에 全世界를 局地的으로 分割하야 그 局地內에서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함에 依하야 局地的安全保障을 確立한다는것이니 卽 相互援助條約을 中心으로한 局地的安全保障 確立에 依하야 國際的 新平和機構를 構成하자는 案이다.

二

如斯한 新國際機構案이 提唱되게된것은 國際聯盟을 中心으로한平和機構가 聯盟創立以來 前後十數年동안의 幾多의 經驗에 徵하더라도 國際紛爭을 平和的으로 處理하고 戰爭을 防止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야 그無力을 餘地업시 暴露하야 그威信은 墜落되어섯고, 現在 伊에紛爭處理에 잇서서는 英國이 積極的 强硬態度를 堅持하고 聯盟中心主義로써 進出하야 優柔不斷한 佛國을 說得하야 이를 잇글고 聯盟諸國을 牽制하야 全會一致로써 伊太利에 對하야 制裁規定을 發動하고 經濟斷交에 着手하는等 聯盟의 威力을 發揮하야 表面으로는 聯盟의 面目을 세우게 되엿스나 이도 事實上 不可能한것을 보게되엿스니 어찌 將來를 保障할수가잇스랴! 이에 聯盟의 可謂 最後的 試金石인 伊에紛爭을 通하야 伊에戰爭을 阻止하기는 事實에잇서서는 亦是 有名無實로 幾多의 矛盾과 弱點을 暴露하야 聯盟을 試驗할대로 다해본 英佛兩國이 聯盟에 對한 失望에서 將來에 對한 保障을 엇기爲하야 新機構案을 案出해낸것이라고 解釋할수잇다.

三

그러나 一方으로 이는 英國의 用意周到한 外交의 表現이라고도 볼수잇스니 英國이 伊에紛爭에 過히 深入하야 佛國의 協力과 共同動作을 엇기爲하야 幾多의 外交折衝이 잇는 結果 過般의 海軍相互援助案까지 成立을 보게되엿는데 如斯한 英國의 積極行動이 將來 大陸紛爭에 英國이 曾려 들어갈 可能性을 豫示하는것가튼 印象을 남기게되것을 直覺한 英國이 미리 이에 對한 防禦障을 施하여야할 必要를 痛感한남어지 佛國과의사이에 條約的으로 英國의 態度를 闡明해둔것이라고도 할수잇스니 英國의 提案이라고 傳하는 (一)로카르노再確認에 依한 라인國境保障의 義務負擔 (二)滿洲合併反對에 對한 斷念 (三)佛伊協定批准中止 (四)中歐及東歐紛爭에 英國이 捲入되을 希望치안음 等의 諸項으로서 英國의 內意가 那邊에 잇는지를 推察하기에 足할것이다.

四

이것을 要約하면 英國은 佛國이 地中海上의 英國 海權을 援助하는 代償으로 라인國境線의 保障에 對한 義務를 負擔하겟스나 그以外의 歐洲紛爭에 干與치 안켓다는것을 確言한것으로서 英國이 一步 退却하야 英國本來의 政策으로 還元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오 歐洲 大陸內에 잇서서의 佛國의 安全保障은 佛國自體가 局地的으로 이것을 確立하라고 示唆한것이 分明하다. 그러나이 結果가 果然 局地的 安全保障을 確立하야 平和를 維持할수가 잇슬는지 甚히 疑問이니 大戰後 今日까지 歐洲는 그래도 [illegible] 中心으로 그平和를 維持해오던데 [illegible] 局地的相互援助條約으로 平和를 維持하려고 할때에는 [illegible] 今日까지의 所謂 [illegible]

[illegible] 그자신을 [illegible] 相互援助란 名目下에 [illegible] 無制限한 [illegible] 增大하는 結果를 生하게 될 것이니 英佛兩國間에 [illegible] 國際新機構案은 各自國의 安全保障을 [illegible] 喪失되것은 [illegible] 維持에 [illegible] 結果에 잇서서는 歐洲를 大戰前의 狀態로 還元시키게될것이다.

對英千萬磅借款說 宋子文氏確認!

中國이살려며는幣制改革은不得已한일 現銀引渡를日本側이拒否하면敢然對抗

激烈한言辭로써應答

宋子文氏

【上海七日發聯合】當地 日本側銀行團有力者某氏(特히 姓名을숨김)는 非公式代表로서 今回 中國側의 取한 突然한 幣制改革에 關하야 七日 午前十一時 宋子文氏를 訪問하고 該問題를 中心으로 相當히 深刻한 意見 交換을 行하엿는데 確聞하면 同 宋上宋子文氏는 中國이 살어가려면 幣制改革斷行도 不得已한일이다 現銀引渡에 對한 中國의 要求를 萬一 日本側이 拒否하면·中國으로서는 日本이 모렐,섬포드를 中止하여도 敢然히 此에 對抗할터이라고 자못端的으로 또한 激越한 言辭로써 應酬하고 다시問題化한 레이드롯스氏 一千萬磅 借款成立說의 眞僞如何 質問에 對하야는 억지로 否定치안는다 目下 着着 進捗中이라고 確實히 明言한 바잇섯다

香港政廳에서 □□□ 銀輸出禁止斷行

銀兌換停止令도提出

【香港七日發聯合】香港政廳은七日午後 行政委員會에 銀輸出禁止及 銀兌換停止令을 提出하고 七日 實施키로 決定하얏다 法令의 要旨는 다음과갓다

一、今後 銀의 輸出을 禁止함

一、香上、有利、차타三行의 紙幣를 法定通貨로써 銀兌換을 停止함

澳門政廳도禁止

【澳門七日發聯合】澳門政廳은六日 銀輸出禁止를 斷行하얏다

銀省有令으로 廣東金融界混亂

【廣東七日發聯合】廣東政府의銀省有令으로 六日香港달라百弗에 對하야 百四十八弗이엿든 廣東紙幣는 七日正午에至하야 急落 百六十弗을 부르게되는同時에 從來硬貨와 同額으로 通用한省市兩銀行紙幣는 小洋銀貨보담二割假量暴落하얏는데 輸出商品의市價高騰은 이에追隨할것이다 但香港爲替市場에對한 金融至商取引은 全然停止狀態

中國의幣制改革

英中借款成立은 日、對中策에背馳 (三)

徐椿

다음 今番事端에 對하야 日本이 强硬히 反對하는 政治的理由를 말해보면 이러하다. 먼저 注意거리로 一言할것은 日本이 反對하는 理由는 그것이 곳 英國이 하고저하는 理由라는 一點이다. 그럼으로 日本이 反對하는 理由를 보아가노라면 英國이 하고저하는 理由가 더욱 明白해 질것이다.

日本의 中國에 對한 方針은 政治的으로는 中國에 對하야 (一)滿洲國을承認할것, (二)赤化를共同으로 防止할것, (三)抗日反滿運動을 絶滅해 줄것等等의 세가지다. 그리고 經濟的으로는 政治的三原則의 實現을 土臺로한 日、滿、中三國의 經濟提携, 簡單히 말하면 日中兩國의 經濟提携의 一事다.

그런데 日中兩國의 經濟提携를 積極的으로 實現해가는데는 첫재 中國自身을 爲하야 또는 日中兩國의 相互扶助를 爲하야 中國側이 꼭 직혀 주어야 할 消極的條件(不作爲의條件)이 하나 잇다고 日本은 생각한다. 不作爲의 條件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條件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具體的으로 말하면 中國이 諸外國에 對하야 借款을 하는 問題다。 換言하면 中國이 外國의 資本을 借入하는 一事에는 日本은 거의 絶對로 反對다。 그러기 때문으로 그間、中國에 對外借款問題가 이러날때마다 日本은 中國에對하야 自活自立策을 倫것을 勸告해 왓다。 이것을 日本서는 對中自力更生主義라고한다。

또한 日本은 從來(從來라는 말에 語弊가 잇스면 近來라고해도조타) 英國에 對해서는 中國에 對한 日英兩國의 協力主義로 一貫해온것이다。 何故오하면 南部中國에 主力하는 英國과 北部中國에 主力하는 日本과의 사이에 共同步調를 取해야만 될 理由가 別로 업다는것도 한 理由가 되려니와 그보다도 더 (一)英國이 中國에 對한 權益을 現在以上으로 擴大시키기를 希望치 안는다는 潛在的意識이 잇는데다가 (二)小亞細亞에서 亞弗利加에서 南洋에서 印度에서 日本商權의 驅逐을 일삼는 英國과 오직 中國에서만 共心協力할 必要가 어디 잇느냐? 하는日本國民의 對英惡感情으로도 그러것이다。 그러기때문으로 그間日本은 國民政府로부터 國際共同借款에 應해 주기를 希望하는 비춤 보면서도 모른체 하고 잇섯고、또 英國으로 부터 對中日英米共同借款又는 그以上 나라數의 共同借款의 成立에 力해 달라는 秋波를 보내는데 도 눈을 감아버리고 今日까지 오던것이다。 이미 中國에 한 方針이 이러하고、英國에對한 主義가이러하던 日本으로서 突然 今番事端을 보게되니、日本은 이에 對하야 驚愕할수밧게 업는것이다。 何故오하면 今番事端이 單純한 『銀國有令을 基底로한 幣制改革』에 그친다고 하면 日本은 구래여 反對 할것이 업다。 그러나 問題는 幣制改革에 不可避的으로 附隨하는 英中借款의 成立에잇다。 이 借款問題에 對해서 英中兩側의 當事者는 이것을 否認비슷하게 辯明하고 잇스나、이것은 첫재 國民政府의 現存實力으로 보아 對外借款을 前提로 하지 안코는 今番과 가튼 幣制改革을 實施할수업는 點으로 보나 또는 (二)前後事情을 參酌해 보나、英中兩國間의 借款成立은 벌서 疑心할 餘地가 업시 되엿다。 그러면 이 一事는 日本이 從來 中國에 對하야 取해 오던 自力更生主義와도 背馳되는 것이오、또한 英國에 對하야 取해 오던 日英協力主義와도 相違되는것이다。 日本이 今番事端에 對하야 重大한 反對의 意思를 表하는 理由는 銀國有令을 基底로한 幣制改革 그自體에 對해서가 아니라、이에附隨하는 英中借款成立에 對해서다。 이 借款成立의 一事가 日本의 對中、對英의 두 主義와 다 背馳되는것이니까、日本은 이에 對하야 反對할수 밧게 업는것이다。 大槪、個人의 境遇도 그러하거니와 一國의 主義方針은 自己權益의 要點을 集約하야 定해 노흔것인故로 主義의 背馳는 權益의 背馳요、따라서 一國의 主義의 背馳를 招致하도록 만든 나라는 事實그나라의 權益을 侵犯한나라로 보게 되는것이다。 今番事端이 日中提携에 一大支障이 되는所以도 여기 잇고、日英間의 疎隔을 擴大하는所以도 여기 잇고、따라서 今番事端에 잇서서 그것의 經濟的影響如何보다도 世界政局에 對한 政治的影響이 幾十倍나 더 크다는 所以도 여기 잇는것이다。(續)

五全大會를機會로 抗日令發表說

【北平六日發聯合】國民政府部內에서 혼자서 排日에反對를 死守하고잇든 行政院長 汪精衛氏의 遭難을 契機로 宋子文、孔祥熙等 政府部內의 排日强硬派는 依然 擡頭하야 드되어 英國政府乃至 英國系財閥의 援助로日本과의 經濟的 政治的 紛糾를 知悉하면서 幣制改革을 斷行하는 等 蔣介石氏도 排日强硬派에끌니워 가는것은 인제는 諸般事情이 明白히 此를證明하고잇는바 近日 開會되는 五全大會를 機會로 全國에 抗日令이 公布되지안을것이가고 各方面에서 자못 注目하고 잇다

永野軍縮全權 一行十九日朝鮮通過

近近 倫敦에서 開催될 軍縮會議에 日本代表로 出席할 全權永野修身大將一行은 來十六日頃 東京發 十八、九日頃 朝鮮經由 渡歐한다는 旨를 總督府에 通報해왓다

米國銀買上政策에 重大한影響波及

中國의資金엇는方法은借款外無方法

中國幣制改革과米權威見解

【華盛頓六日發電通】中國의幣制改革은 米國의銀政策에 多大한 影響을 與하는것이오 또 改革斷行에伴하야 英國의單獨借款說及이에對한 日本의反對의 問題가 起하야 米國官邊에서는 幣制改革의 推移及 此等諸問題의 進展에多大한 關心으로써 監視中인데 權威잇는側의 見解는如左하다

日本은 他國과共同하야 中國에 借款을許하는것을 즐겨하지안코 또他國이 中國에 單獨으로 借款을 許하는것에同意치안는 態度를示하고잇다 그리고 日本의如斯한 態度때문에 中國이外國의 借款에 依하야 幣制改革의 資金을 어들수가 업슬境遇에는 中國政府로서는 統制通貨支持의 自由를 엇기爲하야 먼저國有銀을英國 又는米國에 賣却함에 依하야 對英、對米資金을 獲得하야 安定을 圖할것이나 如斯한境遇에는 米國의 銀買上策에重大한 影響을 及하게될것이다 中國으로서는 銀賣以外에 資金을 엇는 方法은 外債發行에 依한 外國의 借款 又는 金을 借할 方法밧게 업다 그리고 英國은 目下 對中借款을 計劃中인데 日本은 이에 反對하고잇다고 信憑된다

떤米陸軍長官 中部太平洋根據地視察

【華盛頓六日發電通】떤 米國陸軍長官은 比島獨立祝典에 列席하기爲하야 目下 마닐라에 滯在中인데 스완손 海軍長官이 六日 말한바에 依하면 떤長官은 歸途 汎米航空會社의 中部太平洋根據地를 巡訪하고 視察할터이라는데 右는 太平洋의 軍事上의 要地이므로 陸軍長官이 親히 同地를 視察하는것은 자못 注目된다

新春의勅題는 『海上雲遠』

【東京電話電通】宮內省發表 昭和十一年 歌會始御題는 七日 午後 如左히 發表하시엇다

歌會始御題 海山雲遠

그리고 詠進의 書式과 期限等은 如左하다

詠進은 一人一首로하고 昭和十年十二月十五日까지에 宮內省御歌所에 提出하라 料紙는 美濃紙竪詠草五折로할것

『에』國軍의反擊으로 伊軍『마칼레』後退

하외센西方에서白兵戰

【아스마라七日發聯合】伊太利軍前哨部隊는 七日마칼레에 到着하얏는데 에디오피아軍의 反擊을 맛나 드되어 後退치 아니치못하게되엿다 伊太利軍의 報告에依하면 에디오피아軍은 再次마칼레西地方을 占據하고 伊太利軍의 進擊을 阻止하고 잇다 [illegible] 보이고잇다 또한伊太利 에디오피아兩軍은 하외센西方地區에서 衝突 白兵戰을 演出한 結果 伊太利將校二名 兵士十名은 戰死 十名은 負傷하얏다한다 但에디오피아軍도 甚大한打擊을 受하고 死體多數를 遺棄한 後南方에 遁走하얏다한다

北中現銀集中에 北中銀行反對

中央의期待에離反!

【北平七日發聯合】北平、天津의 兩銀行工會는 南京政府의現銀集中令에對하야 萬若 北方 各銀行所有現銀을 上海에 送付할時는 北方民衆은 中央、交通、中國三銀行發行의 法定紙幣를 信賴치안코 空前의 大恐慌狀態를 現出할것이라는 理由에서 絶對反對 態度를 取하고 準備保管委員會分會를 北平及 天津에 設置할터를 中央에 要求하엿다 中央도 이反對를 물리치고 어데까지 中央集中을 强制하지안흘것으로 結局 北方의 現銀은 南方에 流動하는일은 업슬러로서 그대로 北方에 存置될 模樣이다 그리고 北平全市의 現有高는 約一千八百萬元 天津은 約三千五百萬元 推想으로 河北一省만으로도 五千數百萬元에 達할것으로 推定되고잇는데 이巨額의 現銀이 中央의 期待에 反하야 北方에 머므는것은 그사이에 何等의 政治的策動에基한것이아니라 北方民衆의 要求에 依한 純粹한 經濟關係

一事一言

새싹들 (三)

長白山人

다음은 科學方面이어니와 一光成高普生이 新種의彗星을 發明하엿다、東京에 잇는 金良毅君이 비타민E의 精成式을 發見하엿다、數十名의 醫學博士나 낫다하는것을 그리 宏壯한것으로 보자는것은 아니지마는 이것도 偉大한 將來를 約束하는 새싹의 하나임은 [illegible]

[illegible]

汪氏再起不能 日中關係前途暗影

【南京六日發聯合】[illegible]

新聞通信界를代表한 同盟通信社認可

十一日에發起人總會

【東京電話聯合】일작부터 申請中의 社團法人同盟通信社의 設立許可는 去二日 新聞通信社及日本放送協會代表者 招待會席上 望月遞相의 言明에 藉하야 關係各省에서 그急速認可手續에對하야 協議中이든바 겨우 一切手續을完了하얏슴으로 望月遞相은 七日午後一時半 創立委員長 田中都吉氏外數名의 代表者를 遞相官邸에 招致하고 直接右認可指令書를 手交하얏다 右에對하야 發起人側에서는 直時 發起人名義에 列치안은全國新聞社에對하야 同社에의 加盟勸誘狀을 發送하고 또 來十一日東京會館에 發起人總會를 招集하야 創立에 關한 協議를 할터이다

蔣氏親蘇政策을 嚴重監視調査

關東軍과北中駐屯軍이協力 專門委員會設置決定

【新京七日發同盟】蔣介石氏의 蘇聯接近政策은 四圍의 情勢에 刺戟되어 最近 매우 積極的이되어 北中에잇서서의 蔣氏의 [illegible] 蘇聯政府와의 結合에 依하야 [illegible] 局面展開를 하려던것이 明瞭하게되어 事態를 이대로 放置해둘때에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할 憂慮가잇서 關東軍及 北中駐屯軍은 이對應策을 考究中이던바 中央의 連絡下에 最近 北平에 蔣介石氏의 親蘇政策에 對한 實情調査의 目的으로 委員會를 設置하기로되엿다

中國側要求 斷乎一蹴

上海日本銀行團서

【上海七日發聯合】上海在留 日本銀行團首腦部는 六日午後十一時부터 正金矢吹支店長邸에서 緊急協議會를 開催하고 中央銀行으로부터 所持銀의 引渡要請을 바든데關하야 愼重協議를 遂하엿다 右協議의結果 아직 最後的決定에 이르지 안헛스나 一、國民政府의 銀持出禁止에關連하야 平衡稅를 引上치안켓다는言明을 公約해두면서 今回 右公約을 蹂躙하고不斷하는것 一、또事前에 何等協議도업시 不時에 今回의 措置를 取한것은 日本銀行團의 從來의 道義的支持를 無視한 不信的이것 [illegible]

日加關稅改訂次 新政府交涉開始

【오타와六日發聯合】맥켄지·킹氏를 首班으로하는 加奈陀新政府는 過般의 選擧에서 標榜한 政綱에 基하야 日米兩國政府와의 間에 關稅改訂交涉에 着手하기로되여 맥켄지·킹氏는 오타와駐劄 日本公使 加藤外松氏와 會見折衝을 開始하얏다고傳한다 킹首相은 更히 來週 華盛頓을 訪問하고 루즈벨트大統領과 會見하야 互惠的通商問題에 關하야 意見의 交換을 遂할模樣이라한다 加奈陀政府는 更히 來二十七日 오타와 各州政廳代表를 招致하야 通商協議會를 開催할 豫定이며 부릿티슈·컬럼비아州 政廳은 右協議會에 [illegible] 報復關稅로 輸出이 杜絶된 日本木材市場을取戾로 强硬意見을 主張할것이라고 觀測된다

人事·集會

◀沈浩燮氏(漢城醫師會長)新任人事次來社

◀鄭求忠氏(漢城醫師會副會長)同上

◀高漢奎氏(平壤醫學講習所) 校務를帶하고入京 明東호텔에投宿

◀李勳求博士(平壤崇實專門教授)同上

夕刊後市況 七日

◆大阪 短期 無配◆

大新 九七三〇(不變)

鐘新 三八二〇(二〇高)

日產 七八三〇(不變)

東新 一五九二〇(二〇低)

◆橫濱 生糸 後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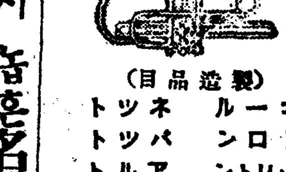
當限 九六四〇〇 先限 九四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三〇〇 先限 六三二〇

商標登錄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工具類製材用品
直輸入商
福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北堀江三番町二六

全鮮에서 놉흔名聲과함께
高級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
萬年筆을都賣廉價提供 ゼスター
(新版カタログ送呈)
大阪市北區老松町四丁目
澤井商會製作所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一三二八〇四番

管樂器


(製造品目)
コールネツト トロンパツト バリトン アルト バルトロンボーヌ スライドトロンボーヌ
特約店募集
創業明治廿七年
上野管樂器製作所
大阪市浪速區稻荷町貳丁目

染料、顏料、塗料
食料用色素、刷毛
油煙、辨柄、削墨
砥之粉、胡粉、磨油
ベーパ・エナメル・ニス
其他一般工業藥品
(商報進呈)
大阪市東區道修町
合資會社 岡久商店
電話本局四九四七番
振替大阪一七五五六九

捻子·鋲·工具類
諸機械及自動車用品一式
商報進呈
福住商店
大阪市西區新町通四丁目十三
電話新町四六五六

고무活字
고무活字
製造元 吉川商店
電話南二〇九番 振替大阪五九一

(印入專門)
タオル
ハンカチーフ
フロシキ
各木綿
(商報進呈)
植田仁本店
大阪市北久太郎町心齋橋筋
電話船場四〇四〇番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藥實香料
商報贈呈
西本商店

大阪着名問屋案內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 초 가 루)
新興 番椒粉

美人印

醫療精魂四十三年

上陸當時생각하면 感慨無量합니다

설흔세살에 이땅에 처음내리든 老博士의回顧談

FARE WELL DR. AVISON

반세긔에 갓가운 사십삼년동안을 인정과 풍토가 서른 수륙 수만리의 조선땅에 건너와서 인류애의 한 사도로 혁혁하던 당시 우리 조선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하야 또 의료계전반의 발전을 위하야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여 가지고 이래 오늘까지 한결가티 헌신적으로 노력을하은 어비신박사가 인퇴하야 쓸쓸한 그본국 카나다로 도라가게 되엿습은 석간에 이미 보도 한바어니와 이제 우리로서 영원히 이저서는 아니될 이 은인을 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감격과 석별의 뜻을 표하는동시에 그가 필생의 사업으로 심혈을 다하야 싸어노코 도라가는 공든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치 아니할수가업다 기자는

이에대하야는 밋소을 비롯하야 일반 사회로부터 가가지로 모든이 잇슬러니와 기자는 위선 발금 세전병원(世專病院)뒤뜰의 한적한 저택에서 도라갈날을 기다리며 자서전의 정리에 골몰하여잇는 씨를 차저가 사십삼년전 즉 일천팔백구십삼년 처음 조선땅에 발을 드듸든때 부터의 감상을 듯기로 하엿다 박사는 차저간 기자를 반가히 마즈며 일흔여서살이라하되 동안백발에 아직도 그다지 쇠하지아니한 원기로 다음과가티 회고담을 들려주엇다

◇

광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빈약하나마 이만큼 사업을 이루어 노코 인제는 물러가도 관계치 아니하겟다는 안심을 품고 물러 가게 됨이 진실로 가삼에 감사한 생각을 늑김니다 내가 나기는 영국 본토에서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살때에 양친을 따러 카나다로 이주하엿지요 카나다에서 주로 의학과 약학에 관한 학문을 닥거 가지고 맨 마즈막 「토론토」대학의 의과교수로 잇다가 선교사의 임명을 바더 가지고 조선에 온것이 일천팔백구십삼년 즉 내 나히 설흔세살때 입니다

처음 오기는 미국 상항(桑港)으로 와서 신호에서 다시 현해환(玄海丸)이라는 배를 타고 부산(釜山)으로 건너와서 그때 비로소 조선 「코레아」의 땅을 밟엇습니다 그게 아마 여름이엇든것 갓습니다. 그때만하여도 어데 지금가튼 기차가 잇섯습니까? 그래 거기서 삼주일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겨우 해주환(海州丸)인가 하는 배를 어더 타고 제물포!(濟物浦)로 왓습니다 제물포! 아시지요 시방은 인천(仁川)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제물포라고 햇습니다 다 그리고 제물포가 외국사람이 조선으로 드러오는 문어구이엇지요

◇

자! 제물포까지 오기는햇지마는 거기서 「서울」로 와야할터인데 무어이나 탈것이 잇서야 하지요! 그래 할수업시 조고만한 목선을 자버타고 한강(漢江)을 거슬러올라왓습니다 참 지금은 조아젓습니다만은 그때는 교통긔관이라고 하는것이 그러케불편햇답니다 그러나 한편생각을하면 나는 도리어 호강이엇든 셈이지요 저! 도라간 아펜셀라씨(현재배재고보교장의아버님)라든지 또지금 평양게신 마포삼열(馬布三悅)씨가튼이들은 나보다도 더 만혼고생을 햇답니다 그런이들이고생하여가면서 배에서 내려온 제물포의 ……으로 나는 마포(麻浦)에서 배를 내려서인교!(하하-섭섭도) 기도 처음이어니와 타기도 둘은 처음이 엇습니다 이것을 타고 비로소 최후의 목적지 인서울에 당도하엿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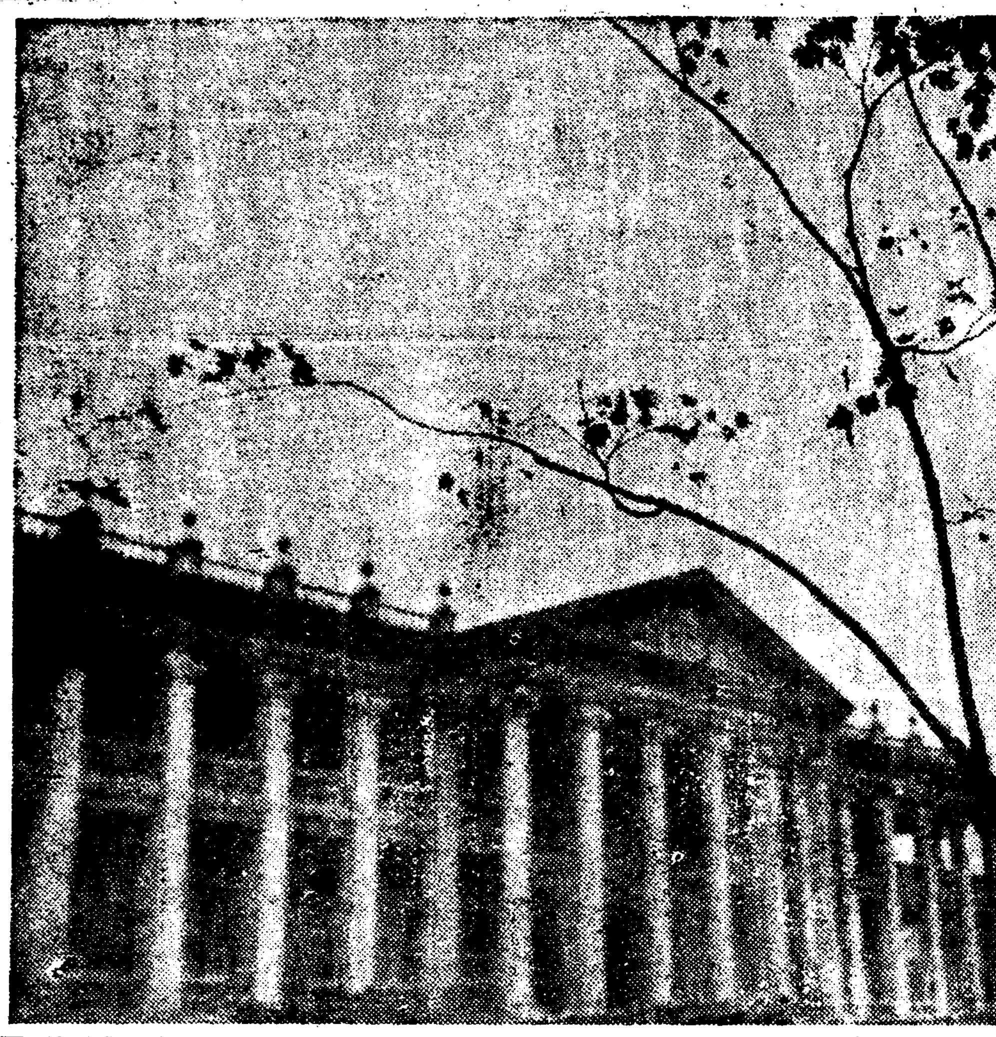
조선-즉서울에 첫거름을 내드듸엇슬때의 인상이 어떠하드냐고요? 네 솔직하게 대답하면 결코 조흔것은 아니엿습니다 (계속)

(사진은 어비신박사가 최초에 지금 명치정(明治町)국제회관 자리에 개설한 제중원(濟衆院)——조선왕립병원——)

阿峴里로가는 道路를改修

경성부청 토목과에서는 긴박한 부재정의 완화책으로서재원(財源)을맨들기 위하야아현리(阿峴里)부유지를 갈나가는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처분하고자전긔 부유지를 끼고도는 새도로를내이기로 하얏다

도로의내용인즉 현재공래정(蓬萊町)고등소학교(高等小學)압해서 시작하야 아현리작업학교(作業校)까지의연장록백육십「미돌」에 로폭(路幅)칠「미돌」이다 경비는 약이삼만원 가량으로를일간입찰(入札)에 부치어오는삼월까지에 준공식일예정이라한다



◇秋色이저물은石造殿◇

朝共再建協議會 李北滿等公判에

檢擧後三年間豫審에잇든八名 大部分病으로衰弱

지난소화칠년 시월초순에 검거되야 소화팔년팔월에 동경풍다마형무소(東京豊多摩刑務所)에 수용되엿다가 소화신면판결에 동경시곡(市谷)형무소로 이감되엿든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사건(朝鮮共產黨再建鬪爭協議會事件)—일명로농계급사건(一名勞働階級社事件)피고여덜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은검거이래만삼개년이라는긴세월을두고동경지방형사재판소옥정、내수、량각、덕전、조원등(東京地方刑事裁判所玉井、內水、兩角、德田、篠原)예심판사의 손을거처 조원치랑(篠原治郎)판사의 손에서取調를 밧고 수일전 예심이종결되얏는데 피고일동은 오래동안의 옥중 생활로 인하야 전부 건강을해 하얏다는바 그중 에서도 가장 심한것은 주범 김치정(金致廷)으로 그는동다마 형무소에 옮겨가자 즉시병감에드러가잇다가 소화구년봄부터 동경부립송택병원(東京府立松澤病院)으로 옮겨갓는데 약이변전부터 신체가 극도로 쇠약하고 위장병기타로 인하야 중태로생명이 위급하다하며리북만(李北滿)엄종호(嚴鍾鎬)량인은 신병으로 인하야 보석치료 중이며 함명헌(咸明憲)은 사상의 전향을 표명하고 동경제국갱신회(東京帝國更新會)에 긔숙하고 잇다한다 검건의단서는 일본공산당원으로서 조선공산당 재건투쟁협의회원 박경호(朴景鎬)가 조선공산당 에대한 상세한보고를 일본공산당중앙부에 제출한것이 일본공산당 대검거 (소위시월삼십일사건) 당시 경찰당국의손에 드러간것이 단서가 되엿다한다

本籍 平北博川郡南面孟中洞二二四 無職(元武漢政府飛行中尉) 金致廷(三〇)
本籍 忠南大安郡笠場面下場里四五 著術業 一名 李北滿 李福萬(三七)
本籍 咸南咸州郡西退潮面松岱里二二九 自由勞働者 一名 林正雄 梁鳳基(三〇)
本籍 京畿道水原郡城湖面闕里一五六 自由勞働者 一名李昌俊 金鳳鎬(三〇)
本籍 京畿道水原郡鄕南面發安里五八 自由勞働者 崔斗煥(三〇)
本籍 慶北慶山郡安心面可龍洞八四 自由勞働者 許燮仁(三〇)
本籍 慶北尙州郡化城面浦底里九四 自由勞働者 嚴鍾鎬(三〇)
本籍 咸南永興郡仁興面浦下里一二九 自由勞働者 咸明憲(三〇)

上海에서潛入 再建을畫策

出版社을두고活動을開始 朝鮮內組織에注力

사건의대강내용인즉 대정십사년사월에 조직되얏든 조선공산당이 소화삼년십이월칠일에「콤민테른」의승인취소를바든후 이것을재건할목적으로 피고김치정(金致廷)이 상해로부터 소화오년일월에 동경(東京)에 잠입하야 활동하다가 동년십일월에조선으로건너와 평안남도와 기타에서 동지권대용(權大用) 리평산(李平山)리창렬(李昌烈)등을 획득하야 조선공산당 재건투쟁협의회를조직하고 적색출판물로 일반농민대중을 획득코자 한것이 원고의검렬이중 기타관계로 못한것을보매 일본내지에 계몽적 출판사(出版社)를 조직할것과 조선공산당재건 투쟁협의회 본출판부를 조직할것과 일본공산당의 련락과지원을 들것등 세가지계획을 새로세우고 소화륙년이월에 다시 동경으로 건너가서 김두정(金斗禎)등과 문봉석(文鳳錫)함룡석(咸龍石)박경호(朴景鎬)등을 획득하야 로동계급사(勞働階級社)라는출판사를조직하고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일본출판부를두고 일본공산당의지원까지지어러 조선출각산업도시 중심으로 중부(中部)령남(嶺南)호남(湖南)관서(關西)관북(關北)의 다섯지방으로 구분하야 활동한것이라한다

小竊盜卅名의首魁

暗黑街의"鹽川橋떡심"

소년들에게 절도를가르켜서 부려먹든자 鍾路署大量으로檢擧

최근 시내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서『오쟁이꼬맹이』『따공꼬맹이』『이천꼬맹이』『술집상아지』등의 괴상한별명을가진 소년절도십수명을 몽치몽치 잡아다가 취조중인데 그들을 취조한결과 의외에도 그들소년절도단의 배후에는『염천교떡심』이라고부르는 삼십세쯤된 암흑가의 괴수가 숨어잇서 대규모의절도단을 조직하야 거리의부랑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그의일류의절도기술을 가르켜서 각각소부대를 맨드러서 시내각처에 출몰하게한 사실이 폭로되엿다 동경찰서사법계에서는 이는 전과오범의 정대용(丁大容)(三〇)의 소행임에 틀림업다고 노리고 그의 그림자를 포착하려고 아연 긴장하야 주목하고잇더니 드디여 칠일오후세시경에 시내 남대문시장에서 무무(武茂)형사부장(鄭)형사의 일대에게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여 일대격투끗해 수리정대용과 그일당 김정동(金貞童)(二九)등 다섯명의번찬도적이 체포되고 동일밤에 시외신수철리(新水鐵里)에서공범김기화(金基和)(二七)가 체포되엇다 그들일당은 약삼십명이나 되다하며 꼬맹절도들의 도적한물품을 거두어괴수도적들이 갈보리집과 화투게를 즐기며 놀아단니면서 질탕히마시고 딴손님들에게 폭행과협박등을 마음대로 하여오던것으로 그경찰에서는 목하 그수괴를 준엄하게 취조하는한편 나머지무리를 잡으려고 계속하야맹활동중이다

前科五犯의 大膽한大賊

범행보도와가티 절도수괴 정대용이 체포되여 종로서 형사실로 목겨오자 그는『이번에는 오년징역은 살어야겟구나』고하며 경찰에잡혀오는길로 판결언도까지 제입으로 내리며 태연한 떡심을 보히고는 다시『설렁탕이나 한그릇먹고취조를바듭시다』라고 하며 련방호기를 뿜내고잇섯다 형사들도 우선 그의청대로설렁탕을 한그릇 사먹이고 취조를개시하엿는데 그는전과오범의 대절도수괴로 경찰에서 정리해둔 피해자 시흥군군자면(始興郡君子面)사는리운룡(李雲龍)(三〇)의 지갑을 남대문압해서 뻬깃을위시하야 각처의 수만흔범죄를그대로 시인하여 내려갓스나 그의부하들의 관계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는중이다

白晝에婦女의 金비녀强奪

이십여세난청년이나타나 行人들追擊타가노처

칠일오후 두시십오분경 부내무교정(武橋町)칠십이번지 재봉틀품파리하는 김성근(金成根)(二?)의 안해 로파가 다옥정(茶屋町)삼번지길압을 막지나갈즈음에 나이스물한살가량되쪼메에리양복 우저고리 회색바지를입은 청년 한명이 뒤로 달려드러서 머리에 꼬잣든 시가 칠십이원짜리 금비녀를 솔개처럼 빼가지고 다러나는것을 『도적이야!』하고 고함을처서 길가든사람들이 추격햇스나 마츰내 잡지못하고 말엇는데 이급보를 바든소관본정서(本町署)에서는물론 이정보를 바든 부내각경찰에서도 사방으로 범인체포에 대활동중이다

昨夜安城에大火

木材商等六戶全半燒 損害一萬三千餘圓

【安城支局電話】 칠일밤아홉시경에 안성읍내 림의곤(林宜坤)씨동이 경영하는 대창목재점(大昌木材店)의제재장에서 불이나서 삽시간에 전소되고 부근에까지연소하여 곡물상 동일상회(東一商會)가 전소되고 또그외에도 주택한호가 전소되고 세호는반소되여 시일바장 여지회되엇는데 동일상회에는 쌀오십가마니가닷스며손해는 제목점이 약일만원、곡물상측이 약오천원기타주택이 약오백원으로 합일만삼천오백원이라한다

竹添町土幕民 弘濟里로移轉

시내죽첨정(竹添町)사정목산(山)일번지 금화산에 사는토막민오십호는 경성부와 경긔도의방침에따러칠일밤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전부 호출하야 일주일안에모다집들을 허러가지고옴겨가겟다는맹서를 바덧다 그들의 옴겨갈곳은 시외홍제리(弘濟里)산기슭에 관유지(官有地)를 무료로 제공하야 집을세우도록하엿다 한다

五十人乘旅客機 來明年부터實現

大邱와小月間을連絡하야 단숨에玄海灘翔破

일본내지와 만주조선련락의 가장 추요(樞要)코-쓰를 점령한 조선해협단비행에 사용할 비행기에 대하야는 일승부터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의 제창으로 오십인승을 목표로 그간당국자간에 착착구체적계획이 진행되여 드디여 체신당국과 일본항공수송회사사이에 의견의일치를 보이게되여 소화십이년도부터는 실현을 보게되엿다고한다 이계획의 실현전제로서 대구(大邱)에 대비행장을 건설하고저 이미 체신국에서는 명년도예산으로 십오만원경비를 계상햇든바 비행장사용기지로서는 대부분을 대구부당국으로부터 기부를 밧고 울산(蔚山)비행장을 대신하야 남조선지방에 대표적비행장으로 출현하게되엿다한다 이외에 또 여기련락하는 일본내지측 비행장은 종래의 태도세(太刀洗)를 대신하야 하관(下關)부근에설치하고저 조사를 진행중 이곳은 요새지대인 관계상 여게지장이 업는산구현풍포군소월(山口縣豊浦郡小月)에 일대비행장을 설치하고저 체신성명년도예산에 계상하고잇다 이와가티 량지비행장이 신설되는때는 대구와소월을 련락하는 대형기가 유유히 현해탄을 상파하야 소월은 산양(山陽)본선으로 대구는 경부본선으로 련락하야 교통기관에잇서 일대「스피드업」을 보이게 될터이라고한다

土地詐欺團 五名을送局

【仁川】 대인천의발전에따라 지가는 십여배 폭등을 보게되야 토지매매가 성행하는 그긔회를엿보는 사기배들이 성행하야 이를엿보든중 수사중 약십여일전에 시내송림리(松林里)박준원(朴俊遠)(二七)한명수(韓命洙)외에 삼명을 문서사기 혐의로 소관서 에서 인치취조중이든바 피해자가십여명에 피해금액이 거액에달한다는바 지난칠일 이천여메지의 일건서류와 함께 전긔 오인의사 기단은 유가증권위조(有價證券僞造) 인장(印章)문서(文書)위조 급 사기죄로 송국되엿다한다

妓生飮毒

情郎과못살아 생명은구조

시내 다옥정(茶屋町)에 거주하는 조선권번기생 리춘봉(李春逢)(二?)은 칠일 오후 여섯시쯤에 그의 집에서 자살할 목적으로 칼모틴과 휘발유를먹고 고민하고 잇는것을그의부모들이발견하고 그부근지성내과의원(至誠內科醫院)으로 데려다가 치료중인데 생명에는 관계업스리라 한다 그가 죽을려한원인을 듯건대 그는 얼마전부터 김조평(金助平―假名)이라는 청년과 서로 정이 드러서 여태까지 사랑해왓는데 그는 기생영업을 그만두고 그남자와 가티 살고시프나 그가 버려서 늙은 부모와 어린두동생의 생활을 부지하여가는 형편이므로 부모가 그 남자와의 가티살림을 반대하여왓다한다 그래서 마츰내 세상을 비관하고 죽엄을 도모하엿든것 이라한다

運動競技

優勝한崇商籠球團 大學팀과도對戰

各選手들의빗나는戰績

東京에遠征하야 中等部에優勝한 平壤崇仁商業籠球部一行은 지난 五日부터 東京에서 立大、帝大、商大等의 大學팀과試合을맛치고 七日 午後急行列車로 東京을 떠나 途中에 京都、大阪、奈良、神戶等地로 轉戰한後 十一日 午後三時廿分에 京城通過로 十二日 午後七時五十二分에 平壤에 到着할豫定인데 東京에서 優勝하기까지의 總記錄表와 個人成績은 다음과갓다 한다

◇個人成績表

位置	選手名	競技時間	總得點	得點時間
F	朴榮大	一六〇分間	90	一分四〇秒
C	趙得俊	一五〇分間	75	二分三〇秒
F	崔成鐵	一五〇分間	41	三分五〇秒
G	金聖鎬	一七五分間	43	四分
F	李禮國	一六〇分間	16	十分三〇秒
G	石道順	一六〇分間	12	十三分
G	邢德俊	一五〇分間	3	五十分
G	安昌鍵	一四〇分間	13	(負傷關係)一〇分四五秒

◇記錄表

一回戰	崇仁商業 67	(28 39 : 11 1)	12	廣島商業
二回戰	崇仁商業 61	(34 27 : 16 4)	20	京都師範
三回戰	崇仁商業 50	(20 30 : 20 12)	32	神戶二中
準決勝	崇仁商業 55	(27 28 : 11 6)	17	千葉商業
決勝戰	崇仁商業 57	(38 19 : 7 12)	19	新潟師範

京城蹴球團一行 大邱서도歡迎戰

凱旋歸路에 잇는 京城蹴球團은 八日 大邱에下車하야 嶺南體育會主催로 八日午後三時부터 啓星學校運動場에서 全大邱와歡迎試合을한後 同日밤에는 京町海東園에서열리는 有志多數의歡迎會에參席할터인바 大邱有志의多數來參을바란다고한다

京蹴歡迎蹴球 釜山서盛況

【釜山】 釜山體育會에서는 今般明治神宮體育大會의 全日本地方對抗蹴球選手權大會에서 優勝하고 五日午後六時에 釜山에 到着한 京城蹴球團을 歡迎하는意味下에 釜山 蹴球團과의 試合을 六日午後四時부터 李榮敏氏主審아래 開始되엿는바 京城軍의 洗練된妙技와 駿足을利用한猛擊은釜山軍을 始終壓倒하야二十對零의大差로 京蹴이快勝하야 五百餘觀衆으로 하야금 感歎을不禁케하얏다한다

獨逸히틀러總統 出場選手差別

【伯林六日發聯合】 올림픽委員會委員長 라?르博士는 五日『히틀러』總統을 官邸로 訪問하고 올림픽大會에 關하야 種種懇談한바 잇섯는데 席上에서『히틀러』總統은 明年올림픽大會에서는 人種宗敎上의 理由로 出場選手를 差別待遇하고 십다는 뜻을聲言하엿다

東京서優勝한 朝鮮庭球代表 昨夜京城에凱旋

明治神宮體育大會에 出戰하야 府縣對抗庭球와 全日本庭球選手權大會에 優勝한 朝鮮代表一行 四十八名은 元氣旺盛裡에 昨七日午後七時二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하엿는데 驛頭에는百餘名의 體育關係者의 迎接이잇섯다【寫眞은 京城驛에내린遠征團一行】

實業團排球大會

日本排球協會朝鮮支部主催 今年度秋期實業團大會는 九日午後一時부터 鐵道局專用『코-트』에서開催케된바 이번參加팀은男子部大象 遞信局 鐵道局 女子部는 女子師範 遞信局 鐵道局等이參加하엿다한다

今日의運動

◀籠球=中央靑年會主催 第九回籠球聯盟戰第一日 入場式(午後六時半) 儆新對徽文(七時二十分) 中央對京貫(八時十分)高普對三角(九時)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 고치는 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허가제)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 최고최량약으로써 찬양사용하며、또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 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잇는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 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許可濟의 治淋劑이다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한은 다면 림질병원균의경과 의학한계에서 철저적전치약으로 추장을밧게되엇스며「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 하는 절대적신용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때는 도로반환할것이니 병원치료를다하야 보아도 효과가 업는환자는 한번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藥의有効無効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료법에 미흡되야서는 안된다 제일주의할것은오줌이다 보통우리가 림질을 알어낼려면、소변을 컵에다바더 본즉、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떠다가라안젓다한다。즉 그것이 림사(淋絲)다 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할지라도、컵에 오줌을 바더보와、실낫가튼 림사(淋絲)가 꼿처어지지안흐면 효력업는것이다。그럼으로 소변을 보와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흐면 안된다 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絲)도 적어지고、뭉중도업서지며、고통도 잡히여전쾌의 목적을달할수가잇다。

梅毒

本社創製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梅毒藥數種을 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 絕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긔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 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루마치스등도 본제의내복으로、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 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상이 점점희박하여저서 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를 복용하야 고치시라。

림질 별제(림질일분)팔원 특제(림질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특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2)三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六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ク

책임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 京城本局前 有田도락구 / 龍山漢江通 有田도락구 / 平壤本町 有田도락구 / 釜山本町一 有田도락구 /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 大邱ㄱ町 有田도락구 /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 鎭海 有田도락구 / 淸津本町 有田도락구 / 京二浦本町 有田도락구 /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 新義州梅町 有田도락구 /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 安東縣四番三 有田도락구 /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 撫順東六條 有田도락구 /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 四平街舍坡路 有田도락구 /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 哈爾賓傅家甸 有田도락구 / 大連紀伊町 有田도락구

朝鮮總本舖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檢擧于今二個年에 六十名送局在邇
百餘名中四十餘名은釋放
明川農組事件一段落

【明川】 일지 세인의 이목을 놀내이던 명천농조(明川農民組合)사건은 발생이후 다수한 남녀청소년을 대량 검거하지 임이 이개년을 보냄 오날에야 일단락을 지은모양인데 지난 칠월 이후로 삼차에 사십여명의 청소년을 석방하고 또다시 지난 삼일에 명천 하가 포항동(明川下加浦項洞) 김대준(金大俊)외 구명과 상가조양동(上加朝陽洞) 김근오(金根五)외 칠명과 상가송동(上加松洞) 박원범(朴元凡)과 아간면(阿間面)의 두평 한이십일명은 무사히 석방되엿다고하며 남은 륙십여명도 믿을만한바에의하면 금월내로 송국되리라 고한다

求職튼靑年— 異域에서自殺

【撫順】 직업을 구하러 무순(撫順)에찻자와다가 세상을비관하고 자살한 청년이잇다! 원적을 황해도연백군은천면금남리(黃海道延白郡銀川面錦南里)에 둔 조문섭(趙文燮)(二七)은 지난 일일밤 개원(開原)으로부터 직업을구하려 동일조통(東一條通) 대동려관(大同旅館)에와서 류하면서 사방으로 직업을구하러다니다가 오일오후삼시 무순경찰서장에게 자긔가 자살한다음 본적지에는 알리우지 마러주기를바란다는 유서를써노코 혈관에 다량의모히주사를하고 누어서신음하는것을 동려관에잇는 백남주(白南柱)가 발견하고 곳현내경관파출소에 알니워서 회생의원(回生醫院)조의사에게 응급수당을 밧게하엿스나 생명은 자못 위독하다고한다

사십여명이 오는십일월구일 본사밀양지국(本社密陽支局)후원하에 밀양조일극장(朝日劇場)에서 공연하려라는데、공료에 관하야 이 밀양에서는 처음이만콤 열망의 긔대가 크다고하며 당일 본보독자에게는 위차로 오십전을 삼십전으로 할인하려라는데 할인권은 동지국에서 배부한다고한다

本報支局後援 오케ー演奏會 大盛況裏終幕

【會寧】 오케ー레코ー드전속가수일행의 래회를 긔하야 회녕읍 수공당시계점(修工堂時計店)주최와 본보회녕지국후원으로 대연주회가 개최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예정대로 지난이、삼량일간 당지극장에서 저녁부터 모여드는 관중은 문자그대로립추의 여지가업시 빽빽 대만원을일우고 대성황리에 막을마치엿다고한다

殖銀管理制施行 小作人二重苦痛

김해군진례면(金海郡進禮面)에 만흔토지를 가지고잇는 식산은행(殖産銀行)은 그소작료에대하야 진영(進永)에는 모일본내지인에게 관리케함으로 관리인은 함부로 소작료를징소하야 중간리인을 착취함으로 소작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잇다고 한다

主事採用問題로 咸興商工所內紛
幹部의食言專橫에憤慨하야 幹部의不信任도不辭

【咸興】 함흥상공회의소(咸興商工會議所)는 작년구월창립후부터 역원배정에대하여 동회의헌세측조선인회원과 일본내지인회원이 절반식되는것 의원(議員)도 거의 동수가되는것등 제반사실에비추어보아서 당연히 역원은 조선인과 일본내지인을 반분지배정하여야 될에도불구하고 리사(理事)이하 서긔(書記)를 전부 일본내지인으로정하고 조선인역원이란 오직 맘석서긔한사람에 근침뿐이므로 조선인의원들은 이인선에 불평을품고 수차 항의를 제출하는등 자못험악한 공긔가 떠돌고잇던바 결국 리사(理事)를 일본내지인으로한 대신으로 조선인 주사(主事)를 채용하기로하되 특히 조선인의원들이 적당한인물을 추천하여 채용하기로 결정이되여 일시무사히 해결을 짓게되엿다 그후 조선인의원들은 각방면에서 적재를 구하든중 결국한모(韓某)라는 가장 적절한 인재를 주사(主事)로 추천하기로되여 지난십일오일 상업회(商業會)내에서 조선인측의원 황항식(黃恒植)씨등 륙명이 집합하고 전긔 한모(韓某)를 주사(主事)로 채용하라는 추천서를 동회에 제출하엿던바 의외에도 동회간부들이 밤새 서긔로 숨겨 식혀 주사도 정하엿다고 하므로 이는 전연 동회간부들의 식언(食言)인동시에 조선인 의원들무시한 독단적 행위라고「분노하거되여 전긔서긔로 숨겨한다는 결정은 승인할수업고 새로추천한 사람은 긔어히 주사(主事)로 채용하여달나고 수차간부를에게 최고서(催告書)를 발하는 동시 현세여하로는 간부 불신임안까지 제출할 통지한다는 국히 강경한태도를보이고 잇다는데 문제는 국히데리케ー트하여 그귀결이 자못 주목되고잇스며 장래로는 불과 일년밧여에 내분이 끈님사이업는 동회의 전정에도 일대의 암운이감돌고잇다할수밧게업다한다

有樂町市場擴張
不足財源은寄附로 期成會서極力活動

【咸興】 함흥부 유락정(有樂町)시장은 함흥서부의 판문으로가장 중요한 시장이나 극히 협소하여 시일(市日)가튼 날은 통행할수 업슬마큼 잡답을 이루든 현세임으로 항상 주민들은 그확장과개선을 절규하고 잇든바 부청에서는 이주민들의 뜻을 밧들어서 만유지 구백오십사평까지 확장으로 대부하여주겟다까지 합의로 주민들도 이를구체화하고저 지난달십일 긔성회(期成會)까지 조직하고 맹활동중이든바 경비예산 오천칠백오십원중 부비(府費)칠백원은지금도시에 충당하고 또 구상리(上里) 리유재산에 일천오백원을 긔부밧기로 되엿스나 그래도 삼천오백오십원이나 전연 재원이 업슴으로 긔성회장 김중긔(金鍾基)씨의 명의로 긔부행위허가원을 함흥서에 제출하야 허가되는대로 즉시 유지들에게서 긔부를 밧기로 되엿다한다

妓生花代引上 【元山】 원산에잇는 사십구명기생들은 다른곳보다 세금이 놉흔데에다가 화대까지 저렴하야 도모지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간 수차 당국에 화대인상을 진정하엿든바 그간 당국에서도 그들의 진정내용을 검토하야본결과 지난 시월삼십일일부터 종전일원하든것을 이십전으로올려 일원이십전식 밧게하엿다고한다

『豊年』은地主노름 小作民엔豊年飢饉
慾心장이 地主의 過重執租로 農村엔哀愁만떠도라

【麗水】 금번도작(稻作)은 중간까지 우순풍조하야 일자행장으로 자라나는 상황을보고 모다 풍년을 꿈꾸고잇섯스나 발수긔(拔穗期)에당하야 뜻의의 중재와 풍재로 일반농민의 가상을 태워와다 과연 요사이 실수확을보면 흉작이 의외로 허무하고 허각(虛殼)이 상반이나되여서 평년작에도 비교할수업는 사실이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안자서 보고듯는 지주들은 풍년이란핑계로 소작료를 함부로집조할뿐아니라 동척(東拓)은 물론이요 흥업(興業)박간(迫間)등 대지주는 모다 근량(斤量)으로 개정하야 일석당 일백칠십근내지 칠십오근으로 회산중수한다는데 그소작료의 산출긔초에대하야는 평예(坪刈)를 하여가지고 그것에 간조감(乾燥減)수량을덜고 그근량을 표준한다고하나 실제평예지를 평균이 상지를취하는것과 금변과가튼허각이 만흔때에 간조감할이 적당치못한관계로 실지수확고와는 영영 딴판이라하며 또금변에는 일석당칠근량이 백사십근내지 백륙십근밧게되지아니함으로 지주의 요구하는근량을 충수하는데는보통 열두말이상이 든다하니 이것만으로도 즉 소작료가 이할 증가한것이다 그럼으로 소작인에서 타조식으로 밥분하자고요구하면 지주는 명년부터 소작권을 반납하라는 조건을 방패로함으로 부득이 울면서 복종한다고한다

警備隊宿營燒却 同胞村落을襲擊
四名拉去、食糧全部를掠奪 去益激甚한土兵行悖

【咸興】 오일함남도경찰부에도달한정보에의하면 삼림경비대(森林警備隊)서수산(徐壽山)에 인솔한일대 구십여명이 십오도구오지 삼분두(十五道溝變貧頭)소재 전채목공사보호병의 한숙소를리용하여 그에주둔할려고 이일에 동지에 도착하엿든바 그룹탐지한 토비만순(萬順)의일미삼십여명은 동일오후두시경 동숙사에 방화하여 전소식한후에 장무령(長茂嶺)방면으로 이동하엿다고 한다 신방자(新房子)에잠재하고 잇던 일미 이십여명의 토비대는사일저녁 십사도구 고려방자(十四道溝高麗房子)에 습래하여 동지 동포 윤치규(尹致奎)외 팔호에서 잡곡팔두 가축수십두와의연등 식료품 다수를 강탈한후에 동포사명은 랍치하여그들에게 운반시켜 가지고 갓다 그리고 십삼도구강성(十三道溝?城)입대에 출몰하여 금품강탈을、감행하던 토비 금산호(金山好)의 일미십오륙명은 사일 삼림경비대가 동지에 도착되것을 탐지하고 급거 동지를 떠나서 동구 우가동(于家洞)이주동포 조랑을 습격하고서 매호마다 수사한후에 곡류(穀類)를 잇는대로 모조리 강탈하여가지고 현계(縣界)방면으로 몰아갓다는데 일변간 지으랑식을 전부일코서 금후살아갈길이 전연 막연한 비참한상태를일우고 잇다한다

曾祖父가曾孫걸어 土地返還珍訴訟

【鎭南浦】 지난 오일 진남포법원지청에는 백발이 성성한 팔십이세의 한아버지가 자긔의 증손(曾孫)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긔리행(土地所有權移轉登記履行)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이 잇서서 한아버지와 손자가 법정에 나타나자 사실을 심리키 전에 담임판사로부터 그대들동방례의지국민족으로 이와가튼행동을 하는것은 동양의도덕을 무시하는것이아니냐고 질책하여 터질듯이 모여든 방청자들의 가슴까지 놀나게한진긔한사건ー원고는룡강군 룡강면옥도리(龍岡郡龍岡面玉桃里) 장석단(張石丹)(八〇)(假名)으로 그의손자 장근조(張根祚)가 그한아버지의 소유로잇는 토지 이천이백구십평을 자긔아들장대성(張大成)의 명의로 이전하여버렷슴으로 수차나 회복하여주기를 청하엿스나 종시듯지 안음으로 그와가튼소송을 제긔한것이라는바 피고대리 장근조의 말을 드르면 자긔아버지가 방랑생활을 하기때문에 그토지도 그냥두면 전부 팔아소비할 념려가 잇서서 그리하엿다하며 원고한아버지의말을 드르면 조손간의 소송이란 남부끄러운 일인줄알으나 먹고살도리가 업서서 부득이한일이라는 답변이잇섯다 장근조는법서 그토지의일부를 팔어버렷슴으로 남은토지와 팔어버린토지의 대금을 도로주겟다고하나 한아버지는 어지되엿든 그토지는 그대로돌려밧도록 하여달라는데 원을 하엿다는바 근대에 보기드믄재판의 한토막이다

農場側捐算으로 小作人蒙害莫甚
狼狽된「迫間」小作人

진영박간농장(進永迫間農場)에서는해마다 추종긔에당하야 각소작인에게 비료(肥料)를 배급하고 그반액은 지주가부담하고반액은 추수긔에 소작인에게 징수하여왓는데 금변에는 도수해를만나서 일부에는 반작만배급하고 일부는외동지하엿슴으로 평변의수확에 파멸을당한 제민들은 자력으로 시비(施肥)를 여력이업서서 밋거룸도하지못하고 흉년에게 빗(債)이라도어들사람은 추비(追肥)를하엿스나 그다지효과가업서서 금변도 농작상황이 매우 험루하다고한다 그러나 지주측에서는 풍변이라는 미명하에 종전의 례률법이 근량까지 작정하야 공수할려이라는바 그손해는 소작인의 독담이 되고만다하야 일반은 동농장의 무리한 처사를 비난한다고 한다

逢三年을繼續 學校備品寄贈 劉義敎氏特志

【南原】 남원군 보곡면 사촌리(南原郡寶谷面沙村里)에 거주하는 유의교(劉義敎)씨는 그면내 보통학교를 위하야 연삼년을 두고 처음해에 삼십원짜리 천막(天幕)한벌과 다음해에 사십원짜리 홍백막(紅白幕)을 긔증한일이 잇섯는데 또 금변가을에는 일백오십원을 들여「풍금」일좌를 긔증하기로 되엿다 한다 그래서 그학교당국은 물론 일반학부형측에서도 전긔 유씨의 특지에 감사한다고 한다

聖劇巡禮上演 【新義州】 불교의성가(聖歌)를 극화하야불교를 민중속에ー늘라는슬로ー간으로 대구에서 조직되여 각지를순례하는 조선불교성극순례단(朝鮮佛敎聖劇巡禮團)일행 남녀

咸州郡瀆職事件 荒木等豫審廻付
拘束一名不拘束十二名으로 六日咸興法院에서

【咸興】 함주군 경리부기주임의 로잇든것을 긔화로대여 경흥사 변간 시심하회에 승하여 민간에서 국유림이에 대부출원을 제출하여 원한금하여서 현금 흥은 주식의향응을밧고서 그들에의 편리를 보아주엇다고 독직금수뢰의혐의로 전담법 함흥서에 피검된 산림기수 황목헌차(荒木憲次)는 지난달 삼십일일에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엿든바 륙일검사의 취조를마치고 동법원예심계에 회부되엿는데구속은 황목외한사람뿐이고 불구속은 십삼명이라고한다

元山、京城에行脚튼 注文詐欺漢送局
犯行件數六十餘件

【元山】 자칭원산토목출장소진흥분공장주임(元山土木出張所鎭興分工場主任)이라고 일컷고 원산은 물론 함흥(咸興)경성(京城)등지까지 돌아다니면서 다액의물품을 주문한후 잠시 돈이업이잇스니 돈을 좀뀌어달라고하여 사긔하여 먹든 희대의 주문 사긔한 중야웅일(中野雄一)(三一)은 긔보 한바와 가티 원산서 수배에 의 하야 룡산(龍山)서에 검거 호송된후 아부(阿部) 사법주임이 엄중 취조하던바 취조도 일단락 되엇슴으로 지난 오일 공문서 인장 유가증권위조행사、사긔금미수등의 죄명으로 검사국에 송치하엿는데 중야는 일즉이 상당한가정에 태여나 최고학부까지 다닌사람으로、풍모와、외교술이 능란한것을 밋기로 처지가 궁하게되매、범행하게되엿다는바 그동안 범행한건수는 실로 륙십여건으로 피해액이 삼사천원에 달한다하며 그피해를 당한곳은 아래와갓다고한다

三市弁 北谷商會 山下組 大村材木店 朝鮮마이도會社 原田組 大洋土木會社

開城
全朝鮮素人劇競演大會
▲時日 十一月九日午後九時
▲場所 高麗靑年會館
◇主催 高麗靑年會學藝部
◇後援 朝鮮日報社開城支局

釜山
釜山商工大運動會
▲時日 十一月十七日午前九時
▲會場 釜山公設運動場
◇主催 釜山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釜山支局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百日咳……氣管支加答兒……咽喉炎……扁桃腺炎
밧튼기침……천식……만성담・기침……홍역
감기…폐염…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에……

어린애의기침은 감기、폐염、백일해、홍역의 위험신호 입니다
하로밧비 기침에잘듯고 먹기조흔「지밋신」으로곳처주십시요

지밋신은 구미각국에서유명한「지미草精」의대표저약으로 지미초의유효성분을 발쓰물룸에 탄것이니 담・기침에잘들을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유효합니다。또한 국약성분이 조금도 석겨잇지안음으로 아무런부작용의염여가업스니 아모리몸이약한 어린애의게도 렴녀안심하시고 먹일수잇슴니다。

그럼으로 기침병중도가장고통이심하고 알는기한이 긴 백일해의 특효약으로써 칭찬을 밧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짤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과 담・기침이개이며 밤에잠을잘자게만듬니다。

チミツシン
지 밋 신

밧은기침……

조선에만흔 밧튼기침 말는기침 노인들의 담 기침에 사용하시면 무슨藥보다도 조선사람의체질에 맛는만큼 제일잘듯는다고 칭찬을밧고잇사오니 부작용의염여가 절대업시 곳담을삭게하고 기침을갈안치며 밤에잠을잘주무시게만듬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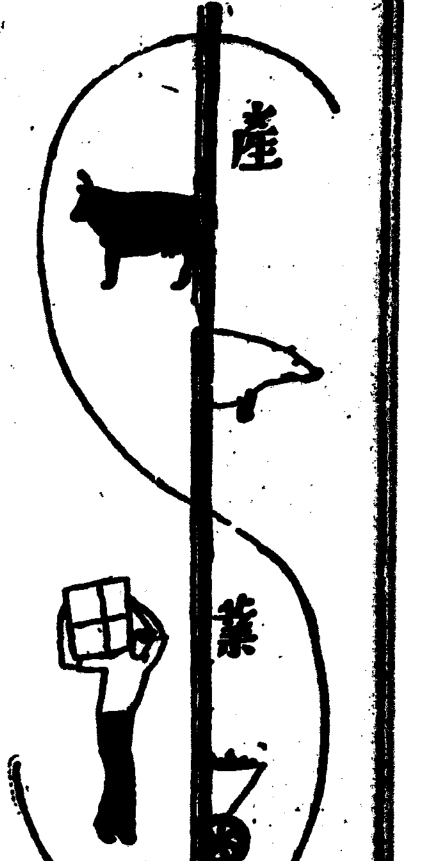
어느가정에도 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 하거든……한 숙 갈……
잠 재 일 때……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병중의악화를방지하고 건쾌를빨으게합니다。

定價…… 三〇〇瓦…一圓八十錢 一五〇瓦…一圓 五〇瓦…四十錢

全道藥房에서 販賣합니다

東京日本橋本町 合資會社 田邊元三郞商店

TY-K-10



朝鮮에도工產品 規格統一委員會設置說
日用品에까지適用?

工產品의 規格統一問題에對하야 이미 日本內地에잇서서는 商工省所管의 規格統一委員會가잇고 그밖에 各分科委員會까지 잇게되야 相當히 實績을나타내이고잇다는바 朝鮮에잇서서는 總督府商工課에서 商工省의 指示를바다 激變한가운데서 朝鮮產工產品의 規格調查를行하야 日本內地委員會에 報告하는程度에 끗치엇다 現在 朝鮮產工產品으로 規格統一을본 件數가 昨年末까지 二百二十三件 最近에 이르러서는 所謂 非常時의 反映으로 今年 百件을 突破할 豫想이라고하며 이에따라 商工課에서는 朝鮮에도 規格統一委員會를 設置하야 좀더 朝鮮의 工產品其他 日用品에 이르기까지 規格統一을徹底히 하자는 說이 擡頭되고잇다한다 元來 規格統一의 元祖는 獨逸이엇는데 歐洲大戰以前부터 그實施로보아 大戰當時에 크게 効果를 나타내엇슴에 鑑하야 大戰以後에 더욱 發展을 하엿다고하며 現在 規模的發展을 보고잇는나라는 米國其他의 歐米諸國에서도 相當히 勵行하고 잇다는데 이는 特히 戰時에 만흔便利가잇다고한다.

官用重要品의 規格을統一
總督府서各道에通牒

그리고 現在大阪府에서는 必需品(日用品)의規格統一을 勵行하야 적지안흔 物資의 節約과工作의 能率增進을 보고잇스며總督府에서는 商工課가率先하야府內의 用紙 封套等重要한것에限하야서만 規格統一을 하고잇다는데 이것만도 一年에 約千圓의 經費節約이 可能하야 不遠에 各道及遞信 鐵道、專賣局에도 規格統一의 通牒을 發할豫定이라하며 漸次銀行 會社等民間에도 그統一을 圖할計劃이라한다

淸道營農方式 急템포로變革
◇麥作廣播種千六百町步

【淸道】土地兼併 機械 金肥等農村에의 資本侵潤이 從來 農階級을 分化하는 一方 營農方式의 改革도 比較的急激히 進展케하야 慶北淸道郡內에잇서在來의 經驗的麥作播種이 意識的 計畫的인 現代改良式으로代替되야 郡農會特選 四十個部落의 約一千町步는 廣播種이 完了되고 郡內 主要道路沿線에잇는 田畓 約六百町步에도 目下急템포로 改良普及이 實施되여가는中이라는데 今秋의 改良式麥作 廣播種은 結局一千五六百町步에達할貌樣으로 在來營農方式의 大革新을 招致케할 傾向에잇다한다

江西秋耕競進會盛況

【江西】지난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 江西邑 언장거리들에서 平

鑛區附加稅新設에反對擡頭

內務局에서 進行中의 地方稅制整理에 際하야 새로히 鑛業朝鮮의 現勢를 보고 鑛區稅附加稅를 賦課할 方針을 決定한바이에對하야 果然鑛業界에서 時期尙早 國策背馳의 非難이擡頭하고 먼저反對를 提唱한것은지난 五日總會를 열은慶北鑛山協會에서의決議로 政務總監、殖產局長、內務局長에게 陳情書를 보내엿는데 同運動은 全朝鮮的으로 擴大한 形勢이다 그主張은 現在 金外에 對하야 鑛產稅의 免除는 奬勵할 策을 取하엿슴을 不拘하고 加稅徵收는 이國策에 背馳하야 中小鑛業者에 負擔이 過重케되다는것을 理由로 드는데 日本內地에서는 附加稅는 徵收되고 朝鮮에서도 從來道에 따러서 徵收한傾向도 잇다

蠶種의移出 逐年急激增
今年은一躍十萬餘箱

農林局調查=日本內地로부터의委託에 關한 朝鮮內의 蠶種製造數를 보면 昭和八年度는 五五、〇八四箱(移出五〇、五〇七箱) 昭和九年度 五六、四三三箱(移出數量五五、七八七箱)이고 昭和十年은 一躍一〇二、八七四箱(移出一〇〇、一〇四箱)으로 激增하얏는데 이는 普通蠶種만으로 原蠶種은 昭和九年에 九九〇箱의 移出을 보앗슴에 不過하다 移出處는 兵庫 長野、京都、廣島、高知、愛知、岐阜、滋賀、鹿兒島等이 主인데 이는 今年부터 原蠶種管理法下에 잇게됨으로 注目된다

於靑島에捕鯨會社

【群山】群山近海에 잇는 於靑島는 全北이 가지고잇는 唯一漁港인바 今番 日本內地에잇는 日東捕鯨會社에서 오래전부터 同島에다 捕鯨會社를 設置하려고 여러가지로 試驗研

今年砂防事業 大體一段落
明年度는豫算을增額

十年度의 砂防事業은 大體一段落을 告하게 되엿는데 이實施된事業은 合計四百六十一萬三百圓인바 實施內容은 如左하다

(單位金額千圓、面積町)

	金額	面積
國費	六〇〇	一、二七九
道費	一、二六六	三、六一一
洛東江	二、七四三	六、〇五四
合計	四、六一〇	一〇、九四四

그리고 이 勞銀撒布高는 二百十九萬八百二十圓에 達하얏다 明年度의 豫算은 國費二十萬圓을 增額하기로되어 四百八十萬圓으로 遂行할터이다

[illegible] 作業하도록시 [illegible] 業에 [illegible] 게 [illegible] 바엿는데 [illegible] 受賞者는 如左하다고한다
一等(金鵄玉)[illegible] 二等 [illegible] 外七名

朝鮮產軍馬를 京城、龍谷에서購買

八、九、十二、十三의四日間
今年度의 朝鮮產軍馬購買는 馬種改良基支部 羅南騎兵少佐가 購買官이되어 來八、九兩日은 羅南谷牧場에서 二、三才駒、十二、十三의 兩日은 京城競馬俱樂部에서 四才乃至七才馬를 購買하기로되엇다

黃水院江水力을 朝鮮窒素에認可

黃水院江水力發電은 日本內地財閥에서 競願狀態에잇는바 드듸어 一兩日中에 朝鮮窒素에 認可하기로되엇다 同社에서는 明春부터 測量、設計등한후 同社系長津江水電第二期完了後 느저도 昭和十二年度부터 着工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同發電所의 第一期發電力은 二十二萬키로와트요 第二、第三期完了後는 五十萬키로余로 되어 現在의 赴戰

[illegible] 長津江(第一期) 三十二萬키로와 [illegible] 合하면 百萬키로를 突破하게되엇다 朝窒에서는 同發電所의 能力은 알미늄工業用動力에 使用하는同時에 長津江、赴戰江發電所와 聯絡하야 三陟發電所의 過不足電力을 調節하야 朝鮮의 野口事業의 完全한 發展에 協力하기로 되엇다

桑苗代를引上
◇大邱桑苗組合總會서決定

慶北 大邱에서 開催된 桑苗組合會 總會에서는 秋植桑苗及 明春에 配付할 桑苗代를一本六厘로 決定하고 이것을 標準으로하야 道와 協定하기로하엿다는바 前年一本五厘에 比하야 一厘의價高를 볼모양이며 同總會의 決議事項은 如左하다
一、總督府에서 道에 通牒하야 生產하는 桑苗는 生產途中에 當業者에게 損害가 업슴만한

硫安共同購入
大體、朝窒六萬噸 滿化、三井四萬噸

今肥料年度의 肥料共同購入 並 共同配合은 이미 硫安以外의金肥準備는 大體終了한 模樣이다 今後 硫安의 豫定購入額十萬噸을 準備하게될터인데 大體 朝鮮窒素硫安六萬噸 滿化 三井硫安合하야 四萬噸으로될 模樣이다 따라 總督府尾崎技師는 若松仁川配合所長等과 來十日後 大連으로 出張하야 滿化硫安의 購入에 對하야 同社와 折衝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滿化硫安의 購入額은 大體로 二萬五千噸乃至三萬噸 三井硫安은 一萬噸乃至一萬五千噸으로되는 模樣이다

[illegible] 하야 [illegible] 잇다 二、每年秋 [illegible] 는 會期中에 同聯合 [illegible] 三、總督府에서 [illegible] 的 [illegible] 在까지 全北、咸南、黃海의三道를 中心으로 六百頭를 貸付하얏는바 每年平均七十頭內外가 斃死하야 대단히 減少하고 잇슴으로 今番의 貸付者에 對하야서는 充分히 取扱上注意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滿鐵副成硫安 朝鮮에輸入
總督府에서斡旋計畫

硫安不足對策으로 總督府에서는 近近滿鐵副成硫安에 着眼하고 滿鐵尾崎技師가 渡鮮할터인데 滿鐵의 副成硫安은 撫順、鞍山에서 年產三萬噸가량이 잇스나 右는 春邑으로 日本內地와 朝鮮에서는 그리 需要되지안어 主로 南中方面에 輸出되고 잇는바 朝鮮은 地理的으로 자못便利하고 配合原料로 消費할으로 春邑도 問題가되지안코相當히 販價로入手될 豫定이다 이미昨年 鞍山으로부터新義州에二百噸가량 試驗으로輸入하야 好成績을 擧하얏슴으로尾崎氏의 渡滿으로 來年度는一萬五千噸가량의 購入을 行할意向이다

帝國製麻에서 二工場을增設

帝國製麻에서는 當局의 亞麻增產計劃과 呼應하야 現在 新義州工場을 咸南豐山郡에 設置하고 잇는데 今年度에 다시 二工場을 新設할 豫定으로 今月中旬 同社常務 河野寅三氏가 渡來하야 現地를 踏察한後正式으로 工場地를 決定할터인바 農林局에서는 亞麻栽培地區決定에 工場地單位로 合理的으로 栽培를 식힐方針으로 將來의 工場設置地에 對하야 協議할豫定이다

絹織需要激增 一月以後七百餘萬圓
景氣好轉을反映

朝鮮의 好景氣를 端的으로 表現하는것은 今年에드러와 朝鮮의 絹織物需要가 激增하야 十月中에드러와서는 今年移入額은 四百十四萬四千圓을 前年에比하야 一躍八十萬五千圓의 激增을示하고 一月初부터의 累計를보면

本年度移入	二六、二五一、八八二圓
前年度	一八、六三九、五一三
差引增	七、六一二、三六九

로 七百六十一萬二千圓의 激增이다

牙山棉作大豐
◇共販出廻五十萬斤突破?

【牙山】忠南牙山의 今年棉作은 天候順調로 豊作이여서 棉花가 共販에 出廻된 數量이 十月末까지 三十五萬斤에達하엿다는데 그價額은 五萬六千圓임으로 多少農家의 經濟를 潤澤케하는 實効를 나타내이고잇다 昨年度生產三十萬斤에 比하면 十五萬斤의 生產增加를 보게되고 今後에도 二十餘萬斤의 出廻豫想이 確實하여 今年共販이 五十萬斤을 突破하리라고 한다

第一次軍馬貸付數

二十師團管區第一次貸付軍馬는 四日四十五頭의 貸付를 實施하얏는데 그內譯은
▲群山沃溝里一九 ▲載寧沙里院 ▲京城府二 ▲淸津警察署三 ▲大田府一 ▲淸原里農學校一
이고 第二次貸付는 南朝鮮方面에서 十頭內外가 될模樣이다 또 十九師團管區의 第一次貸付는 七日十九頭를 貸付할터이오 第二次貸付는今月下旬에될터이다 그리고貸付軍馬의 成績은 過般行한 師團對抗演習에서 二十師團에서 百八十一頭 十九師團에서 百五十頭를 徵發하얏는데 成績이 良好하야 僅僅二頭가 斃死하얏슬뿐인데 軍獸醫部에서는現

洋灰의消費 五十萬噸突破
朝鮮產은三十萬噸

朝鮮의 今年度 洋灰需要總數는 五十萬噸을突破하리라고보이는바 그中朝鮮產品(小野田製品)은 約三十萬噸 日本內地移入品은約二十萬噸으로 이를 前年實消費三十九萬三千六百七十七噸에 比較하면 約十一萬噸의 增加이다

中國行紅蔘의 賣價는不改
當分間은現狀維持

朝鮮人蔘紅蔘은 中國의 銀國有 實施에依한 上海弗價의 低落으로 賣價를 上海弗價의 低落率만치 引上하야 改訂할 必要가잇게되엇는데 이를 即時 引上改訂할런지 어떨런지에 對하야서는 一手取扱店인 三井物產 京城支店에서도目下考究中으로 結局銀國有制度가確立되여 日中爲替가安定하기까지 現狀維持로 나갈模樣이다

平北의蜂密蠟 二萬箱生產
海軍으로부터注文바다奬勵

【新義州】平安北道農會에서는昭和九年度부터 海軍省局으로부터 蜂蜜蠟의 注文을바다 龜城、泰川、雲山、寧邊、熙川、朔州、昌城等地에 奬勵하엿는바 今年度에 이르러 二萬箱의 產出을내이엿는바 이를 金額으로 보면拾二萬四千圓에 達한다고한다

北滿同胞巡訪記 ③
哈爾濱支局 一記者

高原草욱어지고 氣候土性도不良
協助農場民의生活相

十九日아침 記者는 河北農場을 떠나 九時三十分 宋家驛에서 北行車를탓다 가는길 군데군데에는 지나간날 土兵에게 掠奪放火를 當한 문허진 녯집이 鮮壇에 울고잇스며 鐵道沿邊에서 멀리 아득하게 荒蕪地 가 뻐치고 잇스니 이곳은 아직 治安의 길이 업다는것이 同日하다 白家驛에 닷처 北安鎭에 到着하니 驛前에는 齊齊哈爾 領事를 마지하는 歡迎隊로 雜踏을 일우고잇는데 때는正午다 點心을먹고 即時로

同胞의 生活實相을 알기爲하야 北安鎭 民會를 차저갓다 北安鎭은 滿洲事變以前까지 滿人의 酒幕거리엿든것이 鐵道가 施設된 昨今兩年에 各地에서사람이 물려드러 現在 人口는三千餘에 達한다하며 其中 同胞戶數는 三十五戶에 人口百六十二人밧게되지안는데 一律的으로 約三里 되는 協助農場에 다 보아 그들의 **生活은** 裕足한 形便은아니라고하나 그래도 배워야하겟다는 기특한 생각에서 現在 民會의 經營으로된 四年制普通學校가 設置되여 兒童總數가 三十七名에잇진다 記者가 이곳에 쉬인後 人士를 차저보고 하로밤을 家驛에나려 실오리가튼 벌판길을 더듬어 달으니 뛰여놀든 아동들이 의심스러히 나를처다본다 여긔에 學校가 創立된것은 今年七月부터이며 아직 校舍는 들재로하고 漆板하나가업시 單두間房에 四十八名의 兒童을 收容하고 幼稚班과 普通班으로 나누어 가르키고잇다 그러면서도 배우겟다는

慾望과 배워주려는 그들의 向學熱에는 눈미리 뜨거워진다 그런데 이 農場은 낫는데 여긔에는 우리同胞가 總數八十戶에 男子百七十名과 女子三十二名을 合하야 二百二名이며 農地總面積六萬六千坪에 今年度作付面積은 二百晌(十晌二千二百餘坪)인데 秋收豫想은 每晌平均十二石으로 치고 二千四百石가량이 될터이라고한다

그러면 이것을 現價一石十二圓으로 換算하면 總額二萬八千八百圓이되는데 其中에서 地租每晌二石半과 農場費 이것저것을 合하야 六石式一千二百石에 一萬四千四百圓과 今年度農資貸金六千二百圓을 除한남어지 八千二百圓이 農民들의 收入이되나 이것을 全農戶八十戶에配當식혀보면 結局每戶百八圓五十錢밧게 되지안는데다 昨年度에 남은

舊債를 淸算한다면 아무것도 남을것이업슬것이다 秋收도 끗나기前에 벌서부터 農場管理者側에서는 昨年舊債를徵收하기에 밧부다고하니 이들은 언제나 빗을벗고 마음놋코 農事를 지어볼것인가 農地全面에는 高原地帶의풀이욱어졋고 只今도三尺만 파면어름물을볼수잇다고하며土質은 『알칼리』性이 잇서 어데로 보던지

生氣가 잇서보이지는안엇다 世苦를 餘地업시 격거온 農場民들의 生活을엿보고저 農戶몃집을찻기로하얏다 나즈막한 草家에 허리를구부리고 門안에 들어서니 부엌하나를 사이에두고 房이 左右에잇서 두집食口가 한집에 살게되엿스며 이러한 집이 네채 或은 다섯채가 한집웅에 連하야잇다 房안을 드려다보니 完全한 滿洲式 坑(캉)이 **溫突이** 兩便에잇고 壁은 全部가 흙벽그대로이다 房안의 차림새는 그 生活이 가난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잇스며 한 過去를 말하고잇다 이가난한 生活은 그들에게 떠러진 무거운짐이엇스며 그들의 밝힘이 이곳에 닷기까지에는 포악한 政治와 無情한 本土民들의 **虐待에** 하로도 마음便한잠을이루지못하고 봇다리를 질머진채 東으로 西로 헤매인 苦이 걸어온길이 風霜이사나웟든 行이엇다 잘먹고 잘입겟다는것은 누구나 갓건만 단지 주린창자를 채우려는데도 이러틋험악한 生이요 설은事情도 한두가지가 안임으로 다시 새삼스럽게 늣겨진다 그래도 뒷날의 幸福을 爲하야 勞動한이땅을 開拓하려는 그들의 犧牲은 너무나크고도 만한것이다(續)

琺瑯鐵器의 生產配定에 朝鮮側斷乎反對
輸出統制만考慮乎

琺瑯鐵器의 統制에 對하야서는 當業者 並商工課에서는 其對策에 腐心中인바 傳하는바와가티 日本內地側이 生產配當을 要望하는 境遇에는 斷乎拒絕할 方針으로 決定한 模樣으로 輸出統制만 國策的立場에서 考慮할意向인데 西邦琺瑯聯合會의 辻永氏外四氏는 六日朝 渡來하야 七日入京協議할 豫定인데 以上事情으로 妥協은 困難視된다

日本內地業者 統制를陳情
朝鮮側業者와도協議

旣報한바와가티 日本內地琺瑯鐵器業者는 朝鮮의 琺瑯鐵器業을 統制에끌려너코저 運動中인바 西部琺瑯鐵器組合聯合會 代表一行은 今日 總督府商工課에 陳情을하는同時에 午前中은 堂本商工課長 同事務官等과 面談을한後 午後는 商工獎勵館에서 當事課長 星子技師의 斡旋으로 朝鮮側의 業者와 協議하기로되엿는데 朝鮮側業者는 强硬한反對主張을하므로 그前途가 자못注目된다고한다

永興稅署管下 酒稅七萬餘圓

【永興】咸南永興稅務署管下 永興、高原兩郡六個場所의 一年間 酒造石數가 五千百二十七石으로 그에 對한 酒稅額이 年七萬七千餘圓이란 巨大한 數字를보인다는데 釀造業者들은 年三期로 酒稅期를 當하면 一大걱정거리가 되어잇다고한다

桑田自給肥料 大大的奬勵
各道에現狀調査通牒

總督府農政課에서는 桑田에 自給肥料를 大大的으로 奬勵하기 爲하야 各道에 綠肥(벳치 靑刈大豆 자드잇센等)適地(桑田中의 適地)調査及 現狀調査를 시키고 잇다는바 이에依하야 具體案을 세워서 桑田自肥의 本格的奬勵를할모양이며 이에對하야 相當한 國庫補助도 할計畫이라한다

正租共販開始
坡州郡農會에서

【金村】坡州郡農會에서는 지난三十一日부터 正租共同販賣를 開始하엿다는데 그날은 出荷가 만헛다하며 出荷場所와 出荷日程은 다음과갓다한다
一、汶山販賣所(郡農會倉庫) 十月三十一日 十一月十日 十一月二十日 十一月三十日
二、金村販賣所(郡農會倉庫) 十一月二日 十一月十二日 十一月二十二日

慶南秋蠶良好
飼育戶數掃立枚數產繭共增

【釜山】慶尙南道內 今年度 秋蠶은 飼育戶數 四萬四千七百六十六戶 掃立枚數 二萬二千六百八十三枚 產繭一萬五千九百八十九石으로 그販賣價額도 二十九萬九千一百五圓을 突破하야 昨年同期에 比하면 飼育戶數는 五千五百九十三戶 掃立枚數 一千八百二十五枚의 增加이고 販賣價額도 昨年의 七萬二千九百九十圓에 比하야 二十二萬六千一百十五圓의 激增이라한다

泗川郡綿花共販 七十五萬斤突破

【泗川】慶南泗川郡內의 棉花共同販賣狀況을 調查하면 十月末日現在로 七十五萬八千四百六十斤을 突破하엿고 價額으로는十三萬三千一百六十九圓五十九錢이란巨額에 達하는데 이것을昨年同期의 十三萬一千五百二十八斤에 比하면 實로 五倍以上의 激增인데 慶南道內로서 第一位이며 이것을 本郡內의 共販場 別로본다면 다음과갓다한다

共販所名	綿花斤數	綿花價額
泗川	三三〇、九九〇斤	五八、〇六〇、六〇錢
龍見	[illegible]	[illegible]
三千浦	[illegible]	[illegible]
桐洞	[illegible]	[illegible]
昆陽	[illegible]	[illegible]
昆明	[illegible]	[illegible]
西浦	[illegible]	[illegible]
泗南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肥料管理案에 反對運動의機運
肥料商에는致命傷

前議會에서 審議未了로되어 流產한 肥料管理案은 農林省에서 再次 來議會에 提出하게될 模樣으로 議會에서는 米穀自治管理案과共히 通過가 確實한形勢인데 實現하면 朝鮮에서도 이에準據할 制令의 發布를 보게되고 內容도 日本內地와 大略同樣의 法令適用을 受케될것이다 同法案의內容은 아즉未判明이나 그結果로서
一、肥料價格을 政府의 命하는대로 하여야만한다
一、政府는 肥料商의 在荷、仕入價格、實費價等의 營業上細目에對하야 調査할수잇는權限이잇고 이것을 屆出할 義務가잇다.
等으로 肥料商은 投機가 全然不可能케되고 境遇에 依하야는損失을보고도 販賣하여야할事態도 生케되어 同法案은 製造會社보다도 肥料商에게 致命傷을與할것이 必然한데 朝鮮에서는 如斯한束縛이 日本內地보다 一層 强化될것이라고보고잇다 如斯하야 同法案에 對하야서는 肥料商間에는 벌서 法案反對의機運이잇고 地方의 肥料商間에는 對策을講究中인事實이잇는바 同法案이 議會에上程되어 通過가確實케되면 朝鮮內에서는 意外에猛烈한反對運動이起할것가튼形勢이라한다

綿工聯은紡聯에 强硬操短緩和要望

【東京電話聯合】綿工聯에서는紡聯에 對하야 次期操短率決定에 關하야 綿絲總供給을各月三十萬五千梱이 必要하다고要望하는데 三十萬五千梱은 十月의生產高와 比較하야 二千三百七十二梱의 增加임으로 次期操短率은 必然緩和가 必要하다한것으로 操短은 어느程度緩和될 綿工聯所屬組合全員의 總意에 基하야 二十二日 열일때 相當한 紡績을 硏究를 못한것을 附言하나 强硬히操短緩和를要望한것은注目된다

副業產品時勢週報(朝鮮副業協會調查)

京城 十一月五日

品名	單位	價格
◇菜蔬類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白	同	[illegible]
人蔘	十把	[illegible]
蓮根	一貫	[illegible]
生薑大	同	[illegible]
同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中國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玉葱	十三貫	[illegible]
靑葱	十把	[illegible]
미나리	同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乾瓢根	一斗	[illegible]
松茸	一貫	[illegible]
◇果實類		
苹果國光	四貫	[illegible]
同紅玉	同	[illegible]
同倭錦	同	[illegible]
梨早生赤	四貫箱	[illegible]
同今村秋	同	[illegible]
同晚三吉	同	[illegible]
蜜柑	四貫箱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고추中國	百斤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醬油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綠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麵虫用粉	二叺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粉	同	[illegible]
同中粉	同	[illegible]
同粉	同	[illegible]
高粱粉	同	[illegible]
同粉	同	[illegible]
魚粉メ粕	十貫	[illegible]
糠	七五斤	[illegible]
籾殼	百二十五斤	[illegible]
◇毛皮類		
앙고라免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綿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養鷄用鐵網		
四尺幅 二寸目	百尺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同 五分目	同	[illegible]
◇川魚類		
자라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鶉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蔘根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莞草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林巨正 (216)
火賊 洪碧初 作 安碩柱 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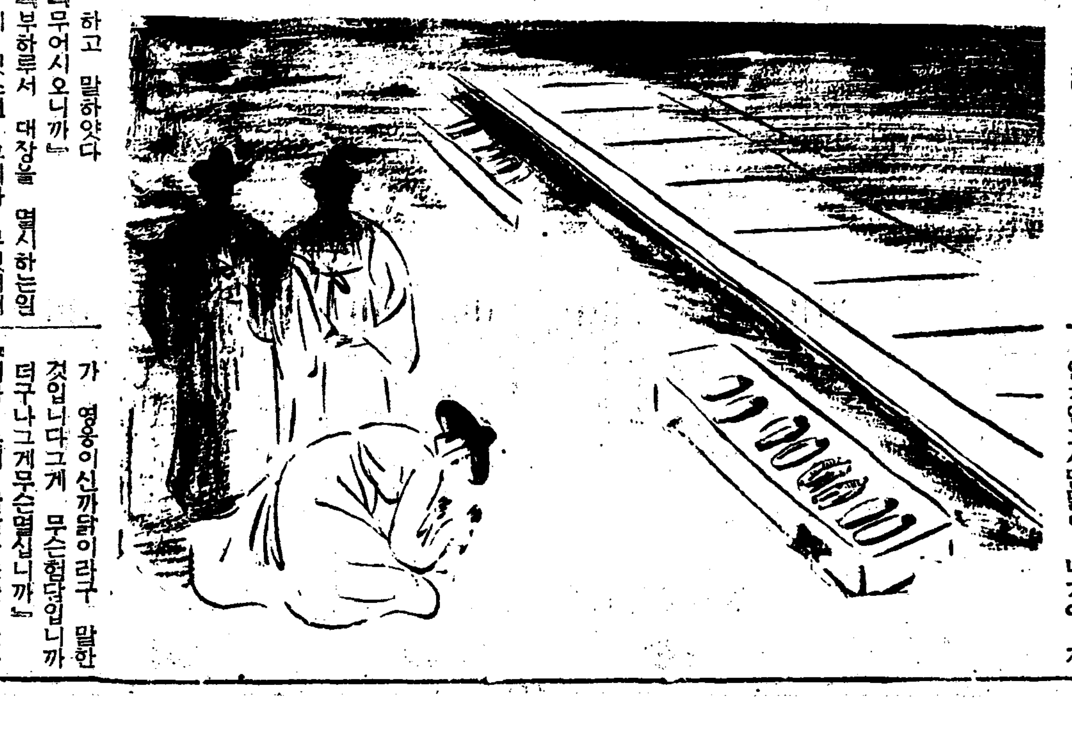
청석골五의 二八

여러두령이 꺽정이의 좋아온것을 바로 큰 정사나 내겨서 소잡아 잔치하라고하는것을 꺽정이는 부지런이 리봉학이가 지하다가

「형님이 오래간만에 오서서두 옥과좋게 돌을 한번 호쾌하는것두 조흐니 금지하지마시우」

권하는것을 조차서 여러두령의 하는대로 내버려두고 알은체 아니하얏다 꺽정이가 좋아오든 이튿날부터 이상일동안 술잔고 도야지 죽이고 떡 만들고 술 비저서 도중상하가 배불을 불리엇다 꺽정이가 새로 도입한 원이나 가사처럼 사흘만에 로소 일을 보기시작하얏는데 여러두령들을 모하노코 공식으로 할말 하고 들을말 들은뒤에 서림이를 돌아보며

「서종사 군법을 좀 물어볼것이잇소」



하고 말하얏다

「무어시오니까」

「부하루서 대장을 멸시하는일이 잇스면 그죄가 무엇에해당하우」

서림이가 꺽정이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대답이 조금 더되엇다

「물으겟소」

「참하야 맛당합니다」

「또 종업는말루 도중인심을소동시키는일이 잇스면」

「그것도 참하야 맛당합니다」

꺽정이가 바로 발길 향하고

「이리 오너라」

하고 좌우시위를 불러서

「서림이를 잡아내라」

하고 호령하얏다 좌우시위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다가

「빨리 잡어내지못하느냐」

벼력가튼 호령소리에 겁겁하야 당장 서림이를잡아끌고 뜰아래로 나갓다

「의관을 벗기구 꿀니어라」

계하에 꿀어업친 서림이를 꺽정이가 내다보며

「너는 비입으루 참하야 맛당하단 죄를 두가지 결처지엇스니 죽어두 원통하게 생각말아라」

하고 일르니 서림이가 고개를 치어들고

「제가 언제 대장을 멸시한일이 잇스며 언제 도중인심을 소동시킨일이 잇슴니까」

하고 발명을 시작하얏다

「너의 죄상은 내가 다알구잇다 발명할생각(말)아라」

「제가 혹시 뭐 모함에 들엇는지는 알수업스나 그러치를 지은일은 꿈에두 업습니다 인명에 관계업는 적은죄라두 빌키구 죄명을 들려주는법이니 제죄상을 아신대루 자세이알려주십시요」

「네가 내험담을 한일이 업느냐 또 여러시 가차 서울루 가거나 사방으루 허터지자는 말을 한일이 업느냐」

「제가 무슨험담을하얏다구 들으섯습니까」

「기집에 빠젓느니 흉닷느니 일을 낭패하느니 망친느니 그런소리를 안햇느냐 햇다면그게 나를 멸시하구 험담한것이 아니구 무어냐」

「제가 영웅이란원래 색을조와한다구 말한일이잇슨법합니다 영웅호색이란 옛말이지제말두 아닙니다 대장께서 색에 범연치안코시단말이 나기에 제가 영웅이신까닭이라구 말한것입니다그게 무슨험담입니까」

「네가 본래 말잘하는줄 안다 그래 한가지는 네발명대로죄가 되지안는다구하자 또 한가지두 마저 발명할말이 잇느냐」

「발명할말슴이 잇다뿐이오니까 그말은 제가 한말입니다 그러나 그말이 대장의 말을 옮겨어 시러구 한말이지 도중 여러사람의 말을 소동시키려구 한말이 아닙니다 제가 당할때 리두령 황두령 두분바게 더듬이신분이 업는걸 보셔두 아실일이구 또 좀개하나라두 그말루 소동된일이 업는걸 보셔두 아실일이 아닙니까 대장께서 오래 도중을 떠나기신까닭으루 도중일이 정체되어서 어떠케하면 대장을 속히 나려오시게할까 여러분이 모다 고심들할때 제가 여른피루 그런말슴을 대장이 오시게하면 말이 움치이실른지 몰을더구 말한것이 웃시다 그게 죄될것두 업는데 구나 죽을죄가 될까닭이 잇습니까 죄업사라두 죽이시면 죽지 별수업는 목숨이지만 억지루 죄명을 씨우면 죽어두 눈을 감지못하두록 원통합니다」

서림이가 절절히 발명하는것을 듯고 꺽정이는 말어서 려두령을 돌라보앗다